

#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녹색교회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의 소명으로!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1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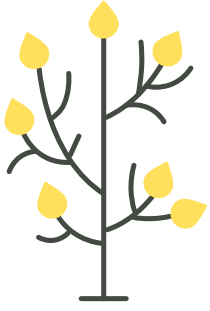


| 참여교단 · 단체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한국교회환경연구소 |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사회농어촌환경부  
기독교대한복음교회 |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서대문)  
기독교한국루터회 | 대한성공회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회봉사부  
구세군 한국군국 | 한국기독교장로회 생태공동체운동본부

| 문의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  
02-765-1136 www.ncck.or.kr  
기독교환경운동연대 · (사)한국교회환경연구소  
02-711-8905 www.greenchrist.org



# 목차

---

인사말	3
환영사	4
환경주간 공동기도문	5
환경주일 주제해설	12
환경주일 예배자료	19
- 설교 예문	
- 떼제 기도 예식문	
- 예배 예식문	
- 찬송 자료	
- 성만찬 자료	
- 파송의례 자료	
주일학교 예배자료	39
- 어린이 설교 예문과 기도문	
- 청소년 설교 예문과 기도문	
2022 환경주일 선언문	45
그린엑소더스(green Exodus) 공동기도문	47
그린엑소더스(green Exodus) 실천다짐문	48
생명의 길 초록발자국 캠페인 자료	49
몽골 은총의 숲 소개자료	51
추천 자료	52

# 인사말

안홍택 위원장(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 / 고기교회 목사)

지난주, 재활용 수거 차량이 오지 않자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비닐 그리고 종이 상자들이 동네의 여기저기 수북이 쌓였습니다. 저 역시 공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시대를 맞아 갑자기 식량 수입이 중단되면 우리 사회는 또 얼마나 혼란스러워질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이 더 큰 피해를 받은 것처럼, 기후위기 시대 역시 사회적 약자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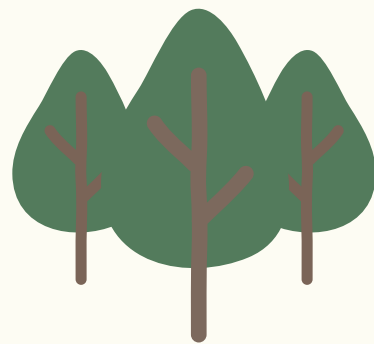
IPCC 제6차 보고서는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 1.5°C 상승 시점을 2040년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10년이 앞당겨졌습니다. 급속한 체제의 전환만이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가능할까요? 타고 다니는 자가용을 없애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데, 마음만 있지 몸이 따라가 주지 않아 여전히 차를 몰고 있는 저의 모습만 보아도 그저 부끄러움과 회의감이 먼저 들 뿐입니다.

생태계와 전 인류에 기후위기가 불어 닥쳤습니다. 해수면 상승, 물과 식량의 부족, 그리고 국가 간 갈등 구조 속에서 그 위기를 가장 최전선에서 온몸으로 맞이할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전환은 무엇보다 정의로워야 합니다. 정의로운 체제 전환을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돌봄이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태계와 인류의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절실한 것은 배려, 나눔, 돌봄의 공동체 실현입니다. 탐욕적

자본주의를 극복할 유일한 희망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점에서 로마 제국 체제에서도 살아남은 교회공동체야말로 대안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교회는 시작부터 긴박한 종말을 소망하며 살았던 공동체입니다. 물론 지금의 교회가 참된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말을 소망하는 신앙이 있는지, 우상과 사이비에 그 소중한 가치를 모두 내어주지는 않았는지 성찰할 일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교회가 긴박한 종말을 희망하는 공동체로서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회복하고 온생명에 대한 배려, 돌봄, 나눔의 정신을 통해 정의로운 체제 전환의 동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환영사

■ 양재성 상임대표(기독교환경운동연대 상임대표 / 가재울녹색교회 목사)

## “녹색 예언자, 녹색 교회”

기독교는 두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적 전통이고 다른 하나는 예언자적 전통입니다. 제사장직은 백성의 고통을 보고 마치 자기의 고통으로 여겨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직임입니다. 용서를 받으면 마치 자기의 죄를 용서받은 양 기뻐 뛰며 사죄를 선언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반면에 예언자직은 하나님의 소리를 경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뜻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는 직임입니다.

기독교 신앙엔 두 가지 신앙전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신앙이고 다른 하나는 창조신앙입니다. 구원신앙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고 영생에 이르는 신앙으로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적색은총이 기반이 되며 창조신앙은 하나님의 창조를 상징하는 녹색은총이 기반이 됩니다. 이 두 신앙은 사람의 두 다리와 같아서 균형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기후위기의 기세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후 위기는 가장 중요하고 예민한 식량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4월에 47도가 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밀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 것으로 예측되며 세계 최대 밀 생산지인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유류가격 폭등에 이어 밀을 수확할 수 없어 밀값이 폭등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밀을 주식으로 하는 제3세계 민중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기후 불평등입니다.

산불은 자주 더 거대하게 더 오래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사과, 배, 포도 재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50년엔 우리가 흔히 먹는 과일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미 옥수수, 대두, 밀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미 옥수수, 대두, 밀은 50% 이상 올랐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식량 재해가 닥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지만 자연을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젠 하나님보다 자연의 눈치를 봐야할 상황입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신성과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충만했던 자연이 그 신비를 잃고 생명을 파괴하는 폭군으로 전락했습니까? 그건 전적으로 인간의 잘못입니다. 창조의 꽃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분수를 모르고 무한 증식하더니 자연을 무참히 파괴하였고 그 결과 자연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심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구원신앙보다는 창조신앙으로 제사장직 보다는 예언자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녹색예언자는 자연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자연과의 사귀고 친교로 초대하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녹색예언자는 돈보다는 생명을 우선하며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합니다. 녹색 예언자는 공유지를 넓혀가고 세상을 통으로 보는 시인의 마음으로 걸을 겁니다.

녹색 예언자를 길러내는 녹색교회 세우기 운동이 절실합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함께 2006년부터 매년 녹색교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파를 초월해서 100여개 교회가 녹색교회로 지정되었습니다. 녹색교회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환경선교를 실천하는 녹색교회들이 있다면 아직 한국교회는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 2022년 환경주간 공동기도문

2022년 환경주일 기도주간은 6월 첫 주일부터 둘째 주일(감리교 환경주일)까지 한 주간 창조세계와 한국교회의 생태적 전환을 위해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 6월 6일(월) 기후미식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허기를 달래기 어렵습니다.  
먹어도 그리운 미각과 잇몸을 지그시 누르는 희미한 기억이 그림습니다.

벌들이 웅웅거리고 새들이 우짖던 초목은 독감과 같은 열기운이 계속되자 이름 모를 병충해와 가뭄으로 사라졌습니다.  
메마른 흙조차 만지기 어려운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 숲에서 온몸을 녹이듯 땀을 흘리며 장을 보지만 신선한 채소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시설재배로 키워내기에 채소는 가난한 이들이 먹기 힘든 음식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땅 한 평을 주십시오.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과 땀으로 생명을 가꾸겠습니다.  
지렁이가 살고 꽃과 나비가 날아 씨와 열매를 맺는 텃밭을 일구어 내 가족과 이웃을 먹이겠습니다.  
배추와 무를 수확하는 날 모두가 모여 김치를 담그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줌의 흙을 주십시오.  
내 밥공기에 소중한 흙을 담아 상추 한 포기 정성스럽게 기르겠습니다.  
한 잎, 한 잎 성스럽게 자라 오를 때 추수의 기쁨으로 오래오래 씹으며 예배하겠습니다.  
그날 우리의 아이들은 이것이 무엇이냐(만나)라고 물을 때 네 조상들이 고기 한 조각을 얻기 위해 허비한 생명의 양식이라고 가르치겠습니다.

주님, 이런 기도를 드리는 날이 오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미각을 살리셔서 죽은 짐승의 사체와 석유에 졸인 과일과 가공식품에서 해방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미식이 맛에만 마비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움, 공평과 정의, 생명과 공존의 맛을 가르쳐 주소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원영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집행위원/ 목사/ 의정부자연에너지협동조합)

# 2022년 환경주간 공동기도문

2022년 환경주일 기도주간은 6월 첫 주일부터 둘째 주일(감리교 환경주일)까지 한 주간 창조세계와 한국교회의 생태적 전환을 위해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 6월 7일(화) 슬로우패션

들꽃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창조주 하나님  
산과 들판에 활짝 핀 꽃들이 우리에게 미소를 짓습니다.  
어제 보고 오늘 보고 매년 보아도 같은 꽃이지만 항상 반갑습니다.  
꽃을 통해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일까요?

들꽃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어쩔 이리 아름다울까, 어쩔 이리 신기할까...

우리는 보이는 모습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지만,  
그럼에도 꽃 한 송이 보다 아름답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빠른 유행은 모든 생명을 지치게 만들고  
매일 생산되는 옷 중엔 주인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버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패션쇼, 과잉생산과 과잉소비되는 옷들 속에서  
미세 플라스틱은 푸른 바다를, 미세먼지는 푸른 하늘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주라 하셨던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가진 것에 만족하며 아껴입고 나눠입는 삶을 통해  
우리 마을, 우리 지구가 건강하게 선순환되기를 원합니다.  
지속가능한 슬로우패션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보이는 모습보다 마음과 생각이 아름다워지는 일들에  
우리의 힘을 쏟겠습니다. 생명을 보듬는 일에 우리의 힘을 쏟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아름답게 입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신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집행위원 / 자연드림교회 목사)

# 2022년 환경주간 공동기도문

2022년 환경주일 기도주간은 6월 첫 주일부터 둘째 주일(감리교 환경주일)까지 한 주간 창조세계와 한국교회의 생태적 전환을 위해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 6월 8일(수) 미니멀 라이프

하나님,  
주님이 주신 성전인 나의 몸과 마음이 소유로 병들지 않게 하옵소서.

건강한 육체가 영혼이 쉬는 거처임을 기억하여  
가벼운 몸으로 하나님의 온기를 느끼게 하소서.  
잠시 잠간의 즐거움이나 육신의 정욕을 따라 먹고 마셔  
탐욕으로 부푼 삶을 부끄러워하게 하소서.  
입에 달콤한 음식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고  
자신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도록 용기와 결단력을 주옵소서.

나의 몸이 소중한 만큼 다른 이의 몸도 소중하게 생각하여  
유전자조작식품(GMO)같은 먹거리를 생산하지 않게 하시고  
내 몸에 치장을 위해 해마다 버려지는 어마어마한 옷들을 보고 회개하게 하소서.

탐욕적 소유로 쌓은 부는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손가락 사이에 모래처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빠져 나가버릴 허무임을 깨닫고 매달리지 않게 하소서.  
적게 가지고 검박하게 살지만 비루하지 않게 사는 것이 맛있고 멋지게 하소서.

인자는 누울 곳이 없어도 실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하늘의 새처럼 들의 꽃처럼  
모든 것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민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집행위원/ 동송교회 집사)

# 2022년 환경주간 공동기도문

2022년 환경주일 기도주간은 6월 첫 주일부터 둘째 주일(감리교 환경주일)까지 한 주간 창조세계와 한국교회의 생태적 전환을 위해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 6월 9일(목) 녹색교통

주님, 주께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은 사람들에게 축복이었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의 끝없는 물질적 탐욕과 쾌락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착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지구는 기후환경 위기의 시대를 맞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교통수단은 물리적 거리에 대한 극복과 많은 편리를 제공한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교통수단의 발전은 탄소배출이라는 문제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교통수단의 변화는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주님, 우리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함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개인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의 태도를 버리고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세상처럼 함께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덴마크는 세계에서 걷기 좋은 도시이며 가장 행복한 나라로 선정되었는데  
이는 걷기와 행복의 가치 추구에 대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걷기와 자전거를 이용한 삶은 도시의 유동 인구를 만들고  
이것은 곧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의 교통보다는 공공을 위한 교통 시스템을 마련하여 사회경제적 효과도 높이고  
탄소도 줄이는 일들을 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현재의 교통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삶의 형태를 바꾸어야 합니다.  
편리한 삶보다는 합리적이고 현명한 삶을 선택할 때  
탄소를 줄이고 건강한 지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위해  
우리가 함께 걷는 녹색교통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류순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집행위원/ 타원형교회 목사)



# 2022년 환경주간 공동기도문

2022년 환경주일 기도주간은 6월 첫 주일부터 둘째 주일(감리교 환경주일)까지 한 주간 창조세계와 한국교회의 생태적 전환을 위해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 6월 10일(금) 그린에너지

생명의 하나님, 모든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의 집 지구별은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는 누이이며 두 팔을 벌려 우리를 품어주시는  
고마우신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과도한 욕심으로 어머니요 누이인 지구를 멋대로 약탈하고 훼손하였습니다.  
성서는 인간이 세상이라는 정원을 일구고 돌보아야 하는 존재(창2:15)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오랜 세월,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말에만 매여있었습니다.

불과 지난 2백여 년 사이에 인류는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하여  
더 큰 이윤을 생산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무제한 연소하고,  
지구를 온실가스로 덮어버렸습니다.

극지방과 고산지대의 빙하는 녹아내리고, 밀림 속에 살아가던 동물들은 내쫓기고,  
그 동물들에게 의지하던 바이러스들은 인간생활권으로 밀려오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의 에너지 탐욕을 멈추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들풀과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으라는 주님의 목소리를 외면하였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구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세상의 아픔을 나눠져야만 합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마태16:24)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삶을 다해 순명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비옵나니, 단순소박한 절제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탄소를 줄여나가는 에너지정의를 이루게 하소서.  
화석연료와 핵발전을 속히 포기하게 하소서.  
창조동산을 돌보는 청지기의 사명을 이루게 하소서.  
생명이 풍성한 녹색세상을 우리 아이들과 나눠가지도록 하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인도하옵소서.  
모든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김영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집행위원, 사천교회 목사)

# 2022년 환경주간 공동기도문

2022년 환경주일 기도주간은 6월 첫 주일부터 둘째 주일(감리교 환경주일)까지 한 주간 창조세계와 한국교회의 생태적 전환을 위해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 6월 11일(토) 녹색서재

세상이 열리던 날,  
주님께서서는 하늘과 땅, 강과 바다, 그리고 그 속의 모든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우리도 첫 숨을 쉬었습니다.  
손수 가꾸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그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충분히 향유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TV를 끄고, 핸드폰을 내려놓으면,  
오늘이라도 걸음을 내디뎌 동네의 산을 둘러보고, 풀과 나무를 만나고  
그 속의 벌레들과 새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풍성한 사랑과 은총이 넘치는 세계의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경탄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눈은 주님의 은총을 보고서도 알지 못합니다.  
떠오르는 햇살의 눈부심과 푸른 이파리,  
색색의 아름다운 꽃들과 나무 사이로 숨어 날아다니는 새들의 모습까지도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은총임에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는 하늘로부터 들리는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지저귀는 새의 소리와 여름밤의 벌레소리  
개구리들의 울음과 바람이 풀잎을 스치는 소리,  
책장을 넘기며 활자를 통해 전해지는 마음의 울림까지도  
우리를 향하신 하늘의 사랑의 음성임에도 우리의 귀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매일 여전히 탄소를 배출해가며 즐거움을 소비합니다.  
우리가 즐거움을 소비하는 동안 수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배출된 온실가스는 우리 세계를 망가뜨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은총과 사랑으로 돌이키게 하여주십시오.  
그 기쁨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불러 함께 동산을 가꾸며 돌보자 하신 주님과 함께  
동산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준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국장, 성문밖교회 집사)

# 2022년 환경주간 공동기도문

2022년 환경주일 기도주간은 6월 첫 주일부터 둘째 주일(감리교 환경주일)까지 한 주간 창조세계와 한국교회의 생태적 전환을 위해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 6월 12일(주일) 생명의 경제

주님, 주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봄꽃들은 벌과 나비에게 자신의 꿀과 향기를 나누고,  
가을 감나무는 새들에게 열매를 기꺼이 내어줍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인간도 주님의 창조물인데,  
우리는 팔고 사면서 이윤을 남기는 것에만 눈이 먼 듯합니다.  
이제는 마을에서 이웃과 가진 것을 나누기보다는 시장에서 상품으로만 만납니다.  
우리 주위에 이웃은 사라졌고, 탐욕의 소비자와 경쟁자만 남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결국 우리는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비와 은혜의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탐욕을 부추기는 맘몬을 섬겼습니다.  
더 많은 돈을 쌓기 위해 누군가의 피땀이 녹아있는 노동의 가치를 빼앗았습니다.  
욕망을 부추기는 광고에 영혼을 팔았습니다.  
상품을 과소비하며 자기과시를 뿌듯해했습니다.  
주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계를 쓰레기더미로, 폐허의 땅으로,  
기후위기의 불구덩이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소서.  
어리석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걸어온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순환을 회복하게 하소서. 잃어버린 이웃을 되찾고 만나게 하소서.  
우리 관계가 돈과 상품이 아닌, 나눔과 섬김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불 질러 놓은 이 세상을 공생과 공존의 땅으로 일구게 하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죽음의 길로 향하던 나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소서.  
죽음을 이긴 부활로 우리의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준표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집행위원장, 손잡는교회 목사)

# 2022년 환경주일 주제해설 1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녹색교회

-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의 소명으로(롬 8:18-19)



이정배 (목사, 顯藏(현장) 아카데미 원장)

기후위기의 압박이 더욱 가열차게 밀려오고 있다. 환경문제에 관한 한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해 온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조차 기후 상승한계를 종전 2도에서 1.5도로 하향 조정할 정도가 되었다. 사실 1960년 초엽부터 기후위기를 말해왔지만, 세계는 성장이념에 빠져 기후위기를 방치했고 의도적으로 눈을 감아 버렸다. 당시 정치가 기후붕괴 현실에 눈을 떴더라면, 경제가 자연과 공존을 모색했었다면, 목적 지향적 기술이 아니라 그것이 결과 예상적이었다면, 적은 비용으로 난관을 헤쳐갔을 터인데 현재 상태로선 지구 생존을 위해 엄청난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다. 단지 비용뿐 아니라 가치관을 포함한 문명 자체의 대전환이 요청된다.

주지하듯 화석연료는 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동력이었다. 그 덕에 산업혁명이 가능했고 물질 문명이 생겨났으며 - 비록 지역 차가 크긴 했으나 - 작금의 경제성장을 이뤘다. 우리가 몸담은 교회도 화석연료의 효과로 이만큼 성장했다. 지금껏 우리는 이런 성장과 발전을 하느님 은혜로 여겼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며 누리고 사는 일을 축복이라 생각했다. 산업화 시대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고, 틀린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화석연료를 더이상 사용할 수 없는 시대에 이르렀다. 탄소제로 사회, 혹은 탄소중립 사회라는 말이 바로 그 현실을 반영한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탄소 배출이 제로가 되는 생산물만을 유통시켜야 한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은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않는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다. 아직 몇 년 유예기간이 있을 것이지만 이를 빠르게 실천하는 나라들이 미래의 주역이 될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교회도 탄소제로 시대에 맞게 신앙 양식도 달리 하고 교회의 존재 형태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에서 세계 환경의 날을 뜻깊게 지키고자 이런 자료를 공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2050년 거주불가능한 지구>란 책이 많이 읽히고 있다. 중요한 것은 종말론자들이 말하듯 거주불가능한 지구의 정확한 날짜나 수치(숫자)가 아니다. 지구 미래, 기독교적으로 말하자면 하느님 창조

질서를 구할 시간이 촉박하다는 뜻이다. 이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아 천국 가면 된다는 기존 신앙 양식 갖고서는 이룰 수 없는 과제이다. 지구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 세상은 모든 영역에서 최대치로 노력해야 한다. 재생 에너지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화석산업들을 구조조정하는 아픔을 견뎌내야 할 것이고, 핵발전 폐기를 위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며, 동시에 '호모 플라스티쿠스'란 말이 나올 정도로 플라스틱 제품에 익숙한 문화와 어떻게 단절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재생 에너지를 통해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생산, 소비하겠다는 발상도 용납되기 어렵다. 재생 에너지나 원자력을 사용한다해도, 해마다 GDP를 2-3%씩 상향하려고 한다면, 20년 이내에 지구 총생산량이 두 배로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증가하는 생산(물)을 지구가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나온 말이 '공생 공빈'이란 화두이다. 인간만이 아니라 지구, 자연 그리고 동식물과 공존하려면 이전보다 가난해져야 한다는 말이다. 물론 이 화두는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소위 잘 사는 북반구 사람들에게 우선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후 붕괴의 우선 피해자들이 남반구 사람들이라는 것에 눈떠야 한다. 이것이 기후정의의 시작이다. 창조 신앙을 지닌 기독교는 어떻게 이 위기와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애쓸 것인가를 세상보다 앞서 늘상 고민해야 옳다. 이런 고민과 노력이 세상에 영향을 미칠 때 사람들은 교회가 주는 물에 목말라 할 것이다. 얼마 전 지구의 날(4월 22일)을 앞두고 환경운동가 한 분(G.A. Bruce)이 기후붕괴 현실을 알리고자 분신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 기후위기를 알린 이 운동가를 향해 교회는 어찌 평가할지 모르겠다. 예수만이 아니라 하나뿐인 지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음을 알리려 목숨 던진 그는 종교의 차원을 넘어 시대의 예언자가 아닐까 싶다. 지구를 구하고자 자기 목숨을 바친 그를 생각하며, 세상을

구할 책임이 있는 교회 역시 기독교적 방식으로 나뉠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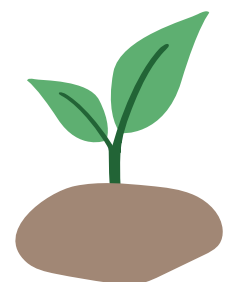
성서는 물론 기후붕괴 시대를 염두에 두고 쓰인 책은 아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보여주듯 우리 현실을 미래로 이끄는 주옥같은 말씀들이 담겨있다. '피조물의 탄식'이란 말이 그것이다. 작금의 기후붕괴의 현실을 '피조물의 탄식'이란 말 그 이상으로 어찌 달리 표현할 수 있겠는가? 임산부의 고통과 같은 상태로 비유기도 했다. 예전에 임산부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있던 존재였다. 새 생명을 잉태하든지 자신의 목숨을 잃어야 할 만큼 위험했다. 이어 성서는 이런 피조물들이 지금 '하느님 아들들'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복수로서의 하느님 아들이란 우리 인간들, 로마서가 즐겨 쓴 표현으로는 '그리스도 안의 존재(Sein in Christo)'를 일컫는다. 세상 - 당시의 로마 제국 - 속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사는 존재, 그가 바로 '하느님 아들'이자 '그리스도 안의 존재'였다. 능력 있으면 노예를 부릴 수 있고 가부장 체제하에서 수많은 여성과 함께 살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알았기에 이런 유의 삶을 스스로 삼갔던 사람들이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기후붕괴 시대를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큰 질문을 던진다. 과연 고통받는 피조물들이 원하는 대로 살겠는가? 아니면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살겠는가? 탄소제로 사회를 위해 지구를 살려내고자 삼가며 살겠는가? 아니면 여전히 부족함 없이 사는 것을 축복이라 여기며 자신만을 위해 즐기고 살 것인가? 혹시 교회만을 지나치게 사랑한 나머지 기후, 환경을 신앙 주제로 여길 생각조차 없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사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9장 1-8절과 함께 읽으면 좋을 주제이다. 성서학자들 중에서 E. 케제만 같은 이는 이 두 본문을 연결하여 해석해 왔다. 그렇

게 '좋아라' 했던 첫 창조에 실망한 하느님은 대홍수의 생존자 노아로부터 새로운 문명을 기대하셨다. 동시에 처음 창조 때보다 더 큰 복된 세상을 약속할 터이니 두 가지 약속을 지키라 명했다. 한계를 인정하며 살라는 당부였다. 마치 모든 것을 사람 손에 맡겼으나 선악과만은 건드리지 말라 했던 첫 창조 때의 그 말씀과 뜻이 같다. 선악과 금지명령은 이제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 것'과 '동물을 피가 있는 채로 먹지 말라'는 말씀으로 재구성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사에서의 정의 감각뿐 아니라 자연과의 형평성 또한 숙지 시키신 것이다. 실상 이 둘은 함께 굴러가는 바퀴의 양면과 같다. 어느 하나가 지켜지지 못하면 다른 것 역시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탓이다. 오늘날 기후 붕괴가 약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새 창조 하에서 인간은 이런 한계(제약)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의 존재일 것이고 피조물들이 원하고 바라는 하느님의 아들이겠다.

이제 기후붕괴 시대, 피조물의 탄식을 경험하며 우리 기독교인들은 '적색'으로 표현되는 십자가 은총과 더불어 자연이 주는 '녹색' 은총의 감각으로 살아야 한다. 적색 은총이 인간사 속에서 정의의 감각과 연결된다면, 녹색은 자연과의 형평성을 적시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인간의 욕망을 앞세우지 말고 은총의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어느 신학자가 말했듯이 은총이란 '최상의 것을 거저 얻었다'는 고백이다. 은총의 감각이 있을 때 우리는 단순, 단출하게 살 수 있고 함께 가난하여 모두를 살리는 삶을 시작할 수 있다. 탄소제로 사회를 위해 기독교가 세상보다 앞서 이 길을 걸어야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창조신앙을 갖고 사는 기독교인의 책무이다. 세상을 돕고 세상에 앞서는 길을 갈 때 비로소 사람들은

기독교가 주는 가르침에 목말라 할 것이다.





# 2022년 환경주일 주제해설 2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녹색교회  
-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의 소명으로(롬 8:18-19)

배현주(목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공동대표, 세계교회협의회 중앙위원)

갈릴리 농촌을 기반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였던 예수와 달리 바울의 교회 운동은 도시 중심이었다. 그래서인지 바울 서신에는 복음서와 달리 자연에 대한 언급이 현저하게 부족하다. 그러나 이 현상만 부각하면 바울신학을 오해하게 된다. 만물(만물)을 포괄하는 바울의 우주론적 신학이야말로 그의 사상적 모체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바울은 '이신칭의' 교리의 사도로서만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바울의 신학은 개인주의적 구원론에 머물지 않는다. '만물'에 관한 우주론적 신학은 역사적 바울의 신학적 성찰의 전제이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생겼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또한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습니다."(고전 8:6). 바울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만유의 주님으로 군림하실 것"이라고 고백한다.(고전 15:28).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의 안에서 존속"(골 1:17)한다고 하는 우주적 그리스도론이 전개된다.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엡 1:23)으로 부르는 우주적 교회론을 만날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교회 교우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역사적 고난을 피조물의 우주론적 현실과 연결한다. 갑작스러운 비약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의 지역교회에 보내는 서신의 집필 과정에서

바울의 근원적인 사상적 토대가 수면으로 올라온 셈이다. 본문 말씀의 맥락은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하고 있는 현실을 묘사하고 있다(롬 8:18-25). 피조물은 하나님에 의해 허무에 굴복했지만(롬 8:20), 하나님의 뜻은 속명론이 아니라 소망과 연결된다. 그 소망은 "피조물도 사멸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다(롬 8:21). 피조물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롬 8:22).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 삼아 주실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다(롬 8:23). 본문 말씀의 맥락에서 드러나는 것은 사람과 피조물의 공동의 신음과 공동의 기다림이다. 인간과 창조세계의 상호연관성을 자연스럽게 전제하는 바울의 신학은 우리 시대의 새로운 우주 이야기를 연상하게 한다. 창조세계를 인격화하여 표현한 고대의 바울신학은 세계를 살아있는 유기체로 파악하고자 하는 현대의 생태학적 통찰력과 공명한다. 인간과 창조세계가 존재의 신비와 즐거움을 함께 경축할 수 있는 관계라면, 공동의 신음과 공동의 기다림이라는 바울신학의 묵시문학적 종말론의 모티브도 그러한 상호관계의 한 변주곡이라고 할 수 있다.

바울 신학의 저항적 성격은 로마제국의 황제 숭배 신학의 배경과 비교할 때 더욱 잘 드러난다. 아우구스투스나 네로 등 로마제국의 황제들은 자신

의 통치를 풍요의 뿔로 장식한 황금시대의 귀환으로 묘사하는 상징들을 문화적으로 유포했다. 로마의 평화는 자연의 구원까지 성취한 실현된 종말론이었다. 바울 서신에는 이러한 우주론적 낙관론에 대한 비판이 암시되어 있다. 로마교회의 교우들은 낙원을 경험하기는커녕 고난을 겪고 있다. 피조물도 사멸의 종살이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다. 이들은 함께 신음하고 함께 탄식한다. 그러나 확신에 찬 기다림과 소망이 있기에 바울은 우주론적 비관론에 빠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롬 8: 24).

피조물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출현이다. 창조세계의 회복을 가져올 리더는 로마의 황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황제들은 칼과 군사력을 이용해서 황금시대를 가져왔다고 선전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세계를 변화시킨다(롬 8:17, 18).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복이 아니라 설득으로, 그리고 새로운 윤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불균형 상태로 교란된 창조세계를 회복하기 시작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새로운 창조’(고후 5:17; 갈 6:15)를 실현하는 삶이었다.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피조물은 영광과 자유를 소망으로 기다린다.

이 본문 말씀은 기후위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의적절한 현대적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교회가 왜 탄소중립과 환경문제를 소명으로 받아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아직 많이 있다. 교회의 관심사를 개인주의적 구원론과 속죄론에 국한시키면서 환경파괴와 기후위기 등 창조세계와의 상호

연관성과 신앙적 응답에 소극적인 교회들이 아직 많이 있다. 그러나 바울은 피조물의 신음과 탄식의 맥락을 도외시 하지 않는다. 자연을 중시하는 영성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토대이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우리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따라서 삼라만상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하나님은 성서에만 복음을 남기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나무들 위에, 꽃들과 구름과 별들 안에도 복음을 기록하셨다”라고 하였다. 성서가 ‘듣는 말씀’이라면, 자연은 ‘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특별계시를 강조하다가 일반계시의 중요성을 소홀히 하게 되어버렸다. 적색은총을 강조하다가 녹색은총을 경시하게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값없는 은총에 감사하는 신앙과 창조세계의 은총에 감사하고 만물의 안녕에 관심을 지니는 생태적 우주론적 신앙 감각이 이제는 균형을 찾아야 할 때이다. 십자가 영성과 생태영성 혹은 창조영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때이다. 피조물의 신음의 뜻을 헤아려야 할 때이다.

기후위기 앞에서 낙관론과 비관론 모두를 경계해야 한다.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와 날씨를 혼동하고 ‘기후변화는 사기’라는 주장을 했었다. 마치 로마제국의 우주론적 낙관론이 재현되는 듯했다. 한편 연대와 행동의 의지를 잠식하는 우울한 비관론과 속명론도 접하게 된다. 바울의 시대에나 우리 시대에나 변함없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출현’이다. 작년 연말에 개봉된 “돈 룩 업”이라는 영화는 기후위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풍자한 블랙코미디이다. 이 영화 속에서 정치, 기업, 언론의 엘리트들은 이 혜성을 발견한 과학자들의 경고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지구를 구할 기회를 놓친다. 조직되지 못한 대중은 우왕좌왕하다가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대안적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2021년 10월 3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의 미흡한 결과에 대하여 지구촌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성명서를 통해서 당혹감을 표현하고 전 세계 기독교 공동체들이 기후위기 대처에 지도자가 되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온난화 마지노선인 1.5도를 지킬 수 있는 최소배출 시나리오의 실천을 위해서 이제 각계각층에서 대화와 성찰, 행동과 실천의 물꼬를 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야 한다. IPCC 6차 보고서에 의하면 이대로 가면 2040년 안에 1.5도 이상 온도가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최선을 다하면, 2050년 무렵 1.5도를 넘어서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21세기 말에는 1.5도 이하로 다시 내려와서 균형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부각되는 두 가지 화두는 '속도'와 '만인의 참여'일 것이다. 고속압축 근대화와 경제성장의 속도로 인한 부작용을 많이 경험한 우리지만 회개의 속도는 빠를수록 좋다. 교회는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전국에 지역교회들이 싹틔줄처럼 퍼져있다. 노회, 총회, 연합기관 네트워크를 가동해서 교육과 실천과 행동의 허브가 된다면 교회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만인의 참여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의 본래 정신과 전국적 네트워크는 20세기 삼일운동에 큰 중추 역할을 담당했고, 21세기 초반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 수습에도 큰 공헌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결국 나 자신이 피조물이 기다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냐는 물음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올해 환경주일 예배를 위한 본문 말씀은 우리 각자의 결단을 촉구한다. 기후위기는 규모가 너무 커서 알면서도 자꾸 외면하게 된다는 이도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의 도전은 기독교 정신의 뿌

리와 기본으로 차분하게 되돌아가도록 부르는 초청이다. 우리가 오랜 세월 외면해서 시장과 광고의 세계로 다 빼앗겨 버린 '사랑,' 바로 그 깊은 길로 조용히 다시 부르는 초청이다. 예수께서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셨다(마 22:37-40).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력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연을 포함한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과 후손의 생명을 사랑하는 길로 되돌아가는 회개의 몸짓이 될 것이다. 일리아 델리오스 『울트라 휴머니즘: 지구 공동체 의식을 갖는 인간으로』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오늘날 우리의 임무는 신성한 사랑의 힘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다. 다른 세상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신성한 사랑의 힘에 따라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은 인생의 정리가 필요하다. 하루의 시간을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일로 다 써버리면 정작 중요하고 급한 문제인 기후위기 문제를 위한 성찰과 대화, 연대와 실천을 위한 시간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갈 길이 멀다. 먼 길을 가려면 손잡고 가야 한다. 교회가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또한 세계적으로 연대하기 위해서는, 다양성 속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연대하는 성서적 교회론이 튼실해야 할 것이다.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를 고백하는 공교회적 정체성이 필요하다. 차이보다 공통분모를 찾는 화해와 일치의 정신이 중요하다. "본질에는 일치, 비본질에는 자유, 매사에는 사랑"에 뿌리내린 에큐메니칼 정신으로 교회가 함께 가야 한다. 기후위기 극복 과정이 지구촌 평화와 인간 안보, 지속가능한 경제와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을 견실하게 하는 사회적 발전 과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록 우리 모두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을 통해 창조세계를 회복하고자 함께 일하는 노력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은 기쁨, 곧 사랑이 회복되는 기쁨과 생명을 살리는 기쁨을 선물로 주시기를 기도한다.



---

# 2022년 환경주일 예배자료

---

설교 예문 | 떼제 기도 예식문

예배 예식문 | 찬송 자료

성만찬 자료 | 파송의례 자료

#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녹색교회

눅 10:36-37, 롬 8:18-19

## 정원진

(서울제일교회 목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공동대표)

### 거의 죽게 된 지구 생태계

오늘은 한국교회가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며 지켜온 제39회 '환경주일'입니다. 오늘 환경주일을 맞아 먼저 떠오른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였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지구 생태계가 놓인 형편과 처지가 마치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구 생태계와 인류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변화, 전례 없는 생물 다양성 손실, 불평등 심화, 코로나19 대유행이 그 위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위기는 다름 아닌 '기후변화'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더구나 기후변화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를 일으켜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작년 2021년만 해도 유럽, 북미, 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 이상 고온과 폭우가 발생했습니다. 6월에는 서유럽의 독일과 벨기에 등에 1,0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2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7월에는 중국 허난성에 폭우가 내려 도시 기능이 마비되고 지

하철 승객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같은 7월에 일본 시즈오카현에서는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하여 30여 명이 사망하고 실종됐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어느 한쪽이 홍수로 신음하고 있는 동안, 또 다른 한쪽은 이상 고온과 산불로 신음했습니다. 작년 7월에 영국 런던에는 사상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북미는 열돔(Heat Dome) 현상으로 캐나다와 미국에 불볕더위가 계속되었습니다. 같은 7월에 미국 데스밸리 국립공원은 최고 56.7°C를 기록했고, 캐나다 밴쿠버 지역은 최고 48.6°C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고온 건조한 날씨는 초대형 산불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세계 곳곳이 작년 여름에 불탔습니다.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 캐나다 등의 초대형 산불 소식이 실 새 없이 뉴스에 전해졌습니다.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에비아섬은 서울 면적만큼 타서 황폐해졌습니다. 터키는 전국 47개 지역 234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나서, 서울 면적의 1.5배나 되는 숲이 파괴됐고, 8명이 숨지고 860명이 다쳤습니다. 이탈리아의 남부 시칠리아와

중부 칼라브리아에서도 큰 산불이 났고, 그 연기가 대낮에 해를 가릴 정도였습니다. 시베리아마저 기온이 치솟으며 사상 최악의 산불이 번졌습니다. 이 산불 연기가 3천km 떨어진 북극에까지 닿았는데, 이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전 세계 기후학자들은 기후변화가 산불을 부추긴다는 점을 지속해서 경고해왔습니다. 올해 2월에 유엔환경계획(UNEP)은 <산불처럼 번지다—이례적인 산불 위협의 증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산불은 가뭄과 높은 기온, 낮은 습도, 번개 등으로 인해 증가한다”며 “최근 덥고 건조한 환경을 만드는 기후변화가 심화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향후 수십 년간 산불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산불 건수가 지금보다 2030년에는 최대 14%, 2050년에는 30%, 2100년에는 50%가 증가하리라는 것입니다. 올봄 우리나라 동해안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도 그중 하나입니다.

작년 가을에 KBS 1TV에서 <기후변화 특별기획>으로 4부작 다큐멘터리 <붉은 지구>를 방송했습니다. 이를 보고 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앙이 성큼 다가온 인류의 파국을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구 생태계와 인류는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과 똑같습니다. 누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치료하지 않으면, 곧 죽고 말 것입니다.

## 인류는 ‘강도’이면서 동시에 ‘강도 만난 사람’

그런데 지구 생태계와 인류를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지구 생태계와 인류가 파국으로 치닫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지구 온

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기후과학자들이 연구에 따르면, 산업화 이후 1850년부터 2019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1.1℃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발표한 제6차 보고서에서 지구과학자들은 한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 1.1℃의 상승은 인간의 영향이 명백하다.” 이 말은 “기후변화의 원인은 100% 인간 때문이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IPCC 워킹그룹 공동의장인 판마오 자이는 “인간의 영향으로 대기와 바다, 육지가 뜨거워졌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로 인한) 기후변화는 극한의 무더위, 집중호우 그리고 가뭄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구 생태계와 인류가 직면해 있는 파국의 원인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때문인데, 그 기후변화의 원인은 그동안 인류가 추구해온 ‘산업화’ 때문입니다. 유한한 지구환경에서 무한한 성장은 불가능한데, 지난 2~300년 동안 인류는 산업화를 통해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쓰레기라는 악순환을 끊임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화석연료를 계속해서 사용했고, 거기서 발생한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는 점점 더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인류가 추구해 온 ‘산업화’, 그리고 그 열매인 ‘성장’과 ‘풍요’는 이제 ‘득’(得)이 아니라 ‘독’(毒)이 되어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 1:28)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구 생태계를 인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허가증’이나 ‘면허증’으로 착각하도록 잘못 가르쳐서 인간의 탐욕을 부추긴 책임이 큼니다. 그렇습

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이기에 앞서 '강도'였습니다. 지구 생태계와 인류를 거의 죽게 만든 '당사자'였습니다.

특히 선진국에 속하는 우리나라는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2억8천만 톤으로 세계 11위입니다. 역사적 책임의 척도인 1951년에서 2018년까지 누적 배출량 역시 세계 13위입니다. 선진국인 우리나라가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개도국 국민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칼을 들어야만 강도가 아닙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 기후 강도이고 기후 악당입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은 지금까지 지구 생태계와 인류에게 기후 강도 역할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기 칼에 자기도 베어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 가서, 너도 이처럼 하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실려 있는 누가복음 10장 25~37절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율법교사와 예수님이 바로 그들입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25절)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29절)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질문만 하지 말고—생각만 하지 말고 "(이웃 사랑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28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37절)

지구 생태계와 인류가 기후위기로 거의 죽게 된 지금, 우리 크리스천이 해야 할 일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듯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당장 달려가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이 아니라 '비

상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후과학자들은 그것을 "great acceleration, great transformation"이라는 말로 요약합니다. 번역하면 "거대한 가속에서, 담대한 전환으로"입니다. 2013년에 발표된 IPCC 제5차 보고서는 "산업화 이후에 지구 평균 기온이 2012년까지 0.85°C 상승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발표된 제6차 보고서는 "2019년까지 1.09°C 상승했다"고 합니다. 단 7년 사이에 0.24°C가 상승한 것입니다. 이제 기후위기의 마지노선이라고 알려진 1.5°C까지 겨우 0.4°C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 1.5°C 상승'이라는 시한폭탄이, 3년 전 IPCC '특별보고서'의 예측보다 무려 10년이나 앞당겨졌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는 점점 빨라지고, 더 강해지고, 더욱 명백하고, 훨씬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폭염, 홍수, 가뭄과 같은 기후 재앙은 그 빈도와 강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뮌히 리'(Munich RE)라는 세계 제1위의 재(再)보험회사의 통계에 따르면, 1980년에는 기후로 인한 전 세계 재난 발생 횟수가 1년 약 250회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1년에 800회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극단적인 재난성 날씨가 3배 이상 증가했으며, 2000년대 들어와서는 그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한 가속'의 현실입니다.

이 가속을 늦추거나 멈추지 않으면 지구 생태계와 인류는 곧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담대한 전환'입니다. 인류는 수년이나 수십년 내에 반드시 '담대한 전환'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미래가 있습니다. 기후과학자 조천호 박사는 "현재에서 미래가 가능하겠냐는 질문은 이미 늦었다"고 단언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미래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거꾸로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봐야 합니다. 미래의 입장에서 현재에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 질문에 답하며 우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세상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녹색교회

그 답이 바로 '탄소중립(Carbon Neutral), 탄소제로(carbon zero)'입니다. 즉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양만큼 그것을 상쇄할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option)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사항'(requirement)입니다. 그것도 시급히, 아무리 늦어도 2050년까지는 반드시 완수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 실현 여부에 인류가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한 계점에 다가가고 있는 이 비상한 때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 일할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지구 생태계를 되살릴 녹색교회와 녹색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하십니다.

다행히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면 창조 세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나 하나쯤이야" 하는 방관적 태도가 아니라 "나부터"라는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우리 교회가 녹색교회가 되고,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녹색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담대한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하면 세계가 변합니다. 우리가

시작하면 세계가 따라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 기후 위기로 인해 다 죽게 된 지구 생태계를 살려냅시다. 창조 세계를 다시 온전케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합시다. 이 거룩한 사역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마 28:20)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동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 떼제 기도 예식문 ✖

## ✖ 시작 찬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새찬송가 79) 1-2절

## ✖ 묵상 노래

두려워 말라 (48)

## ✖ 시편 150 + 할렐루야 11 (64)

(할렐루야 11은 시작할 때와 매 구절 사이에 후렴으로 부른다.)

1.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2.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3.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거문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소구 치며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현금을 뜯고 피리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4. 오묘한 소리 나는 제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큰소리 나는 제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 ✖ 성경 봉독

이사야 65:17-19, 24-25

17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18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19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24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25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 ✧ 묵상 노래 : 주님 너를 고치시며 (113)

## ✧ 성경 봉독

로마서 8:19-22

19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20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21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22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 ✧ 묵상 노래

나와 함께 (3)

## ✧ 침묵 (7-8분)

## ✧ 창조 세계를 위한 기도 + 주님의 자비를 영원히(55)

(기도 시작과 매 기도 사이에 후렴으로 노래한다)

- 1) 사랑이신 하나님, 당신은 우주 안에 계시며 당신이 만드신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정하게 보듬어 주소서.
- 2) 창조자이신 하나님,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이 당신에 대해 말해줍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소서.
- 3) 사랑의 하나님, 화재와 수재, 지진과 태풍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 합니다.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간직할 수 있게 해 주소서.
- 4) 창조자이신 하나님, 우리 안에 찬양과 감사의 마음을 일깨워주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실감하는 은혜를 주소서.

- 5) 사랑이신 하나님, 기후 위기의 해결을 위해 애쓰는 연구자들과 활동가들, 이 분야에 헌신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이들, 특별히 젊은이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 6) 창조자이신 하나님, 당신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해 투쟁할 때 힘을 북돋아 주소서.
- 7)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특히 사랑하는 이를 잃었거나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난민들과 그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합니다.

## ✧ 주기도문 (다 함께 천천히 기도한다.)

## ✧ 마침 기도 (혹은 축도)

성령이여, 당신은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십니다. 우리는 자유케 되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들을 사랑할 수 있고 창조세계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창조된 모든 것은 당신에게서 오며 당신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선물입니다.

## ✧ 묵상 노래

- 항상 주님께 (17)
- 내 맘과 생각 당신께 이끄소서 (111)
- 사랑의 나눔 (14)

### [예배안 설명]

- 본 예배 기도문은 프랑스 떼제 공동체 신한열 수사님이 작성해 주셨습니다.
- 노래 제목은 신앙과 지성사의 '함께 부르는 떼제 찬양'을 참조하였습니다.
- 위 찬양 집에는 떼제기도 준비와 진행에 관한 설명과 안내도 실려 있습니다.

# 예배 예식문

## ■ 예배로의 부름 1

인도자 :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녹색은총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창조세계와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다같이 :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녹색은총을 힘입어 온 생명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는 생명살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아멘

## ■ 예배로의 부름 2

“주님,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여라. 주님은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하십니다.” (시 104:24, 30-31)

## ■ 파송과 결단 1

인도자 :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녹색은총을 힘입어 기후위기 시대, 생태적 전환을 이루는 이 귀한 사역에 앞장서십시오.

다같이 :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생태적 전환을 이루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아멘

## ■ 파송과 결단 2

인도자 : 녹색의 은총을 입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당신의 거룩한 역사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다같이 : 우리는 생태적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온전케 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찬송가 477장)

부르신 뜻을 사는 우리 (류형선 작사, 작곡)

## 부르신 뜻을 사는 우리

류형선 작사작곡

D G/D A/D D G D/F# Em7 A  
*mp* 살아 있는 모든 생명들과 애뜻한 오감을 나누며  
 5 Bm F#m G D/F# Em C/E Asus4 A  
 그 안에 깃든 주의 숨결 느낄 수 있게  
 9 D Gm/DD F#7 Bm G D/F# Em7 A  
 정의는 강물처럼 흐르게 평화가 그 뒤를 따라르게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병든 이 땅을 고쳐 주소서  
 13 Bm F#m G D/F# Em G Asus4 A6 - 7  
 주의 사랑이 햇살처럼 번질 수 있게 주의  
 그보다 먼저 우리들을 씻어 주소서  
 17 D A/C# Bm F#m7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 주의 교  
 21 G D/F# Em9 Em7/A  
 회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  
 25 1. Gadd9/D 2. Gadd9/D D  
*mp* 리 - *mp* 리 -

고마워요 고마워요 (주현신 작사, 작곡)

주현신

주현신

곳거리

E<sup>b</sup> B<sup>b</sup> Cm Fm E<sup>b</sup> B<sup>b7</sup>

1. 고 마 워 요 고 마 워 요 창 조 의 하 나 님 고 마 워 요  
2. 고 마 워 요 고 마 워 요 사 랑 의 예 수 님 고 마 워 요

E<sup>b</sup> B<sup>b</sup> Cm Fm B<sup>b7</sup> E<sup>b</sup>

온 누 리 만 드 시 고 참 생 명 주 시 니 고 마 워 요  
미 움 을 물 리 치 고 참 사 랑 주 시 니 고 마 워 요

A<sup>b</sup> E<sup>b</sup> Cm F<sup>7</sup> B<sup>b</sup>

삼 천 리 금 수 강 산 하 나 님 주 신 동 산 위 에 -  
이 웃 을 네 몸 같 이 사 랑 하 라 신 말 씀 따 라 -

A<sup>b</sup> E<sup>b</sup> Cm F<sup>7</sup> B<sup>b</sup>

생 명 의 꽃 피 우 는 우리 땀 방 을 받 으 셔 요 -  
사 랑 의 꽃 피 우 는 우리 땀 방 을 받 으 셔 요 -

E<sup>b</sup> B<sup>b</sup> Cm Fm E<sup>b</sup> B<sup>b7</sup>

고 마 워 요 고 마 워 요 창 조 의 하 나 님 고 마 워 요  
고 마 워 요 고 마 워 요 사 랑 의 예 수 님 고 마 워 요

E<sup>b</sup> B<sup>b</sup> Cm Fm B<sup>b7</sup> E<sup>b</sup>

하 나 님 주 신 이 땅 아 름 답 게 가 끌 래 요 -  
나 누 고 섬 - 기 며 예 수 님 을 따 르 래 요 -

자연속으로 오신 예수님 (채희동 작사, 이천진 작곡)

채희동

이천진

굿거리(조금 빠르게, 부드럽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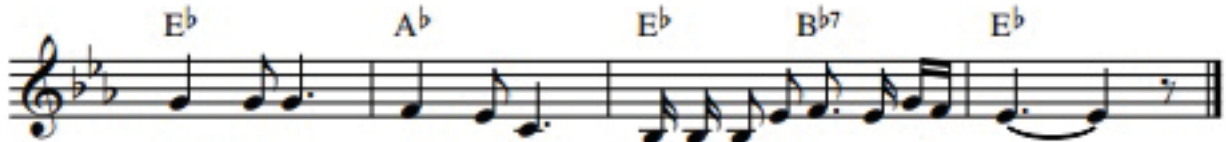
1. 하나님께서 한처음에 세상을만 드실 때 -  
 2.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세상에오 - 실 때 -  
 3. 성령님께서 바람으로 이땅에 불어올 때 -



자연을 말씀으로 아름답게 지으셨- 네 -  
 들꽃과 새가있는 자연속에 오시었- 네 -  
 자연과 사람들을 한몸되게 하시었- 네 -



강산과 만물가득 말씀이 충만하- 고 -  
 주님의 길가에는 백합화 피어나- 고 -  
 생명을 살리시는 성령의 바람 불- 고 -



자연은 말씀을 아름답게 품고 사- 네 -  
 자연은 주님을 고이 고이 모시었- 네 -  
 자연은 사랑을 생기있게 살려주- 네 -

#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한 몸 되는 성찬예전

최진봉 목사  
(장신대 예배설교학 교수)

## [준비를 위한 안내]

1. 본 예전은 설교 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2. 성찬상은 성찬보로 덮지 않고 열어둔 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찬의 떡과 잔은 그 자체로 세상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보이는 말씀으로, 회중은 이를 통해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됩니다.
3. 본 성찬예전을 위해 교회는 금속으로 된 성찬용기나, 플라스틱으로 된 개별 분잔용 용기세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접시에 올린 빵과 포도즙을 담은 잔, 그리고 분병분잔 시 잔에 부을 포도즙을 담아둔 주병을 성찬상에 올려둡니다. 이때 위치는 성찬상 중앙에 빵을, 그 우측에 주병, 좌측에 잔을 놓습니다. 빵은 통밀이나 곡물로 만든 빵일수록 좋으며, 빵 접시와 잔, 주병은 친환경 재질(토기, 목기)로 된 그릇들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4. 하나의 빵으로 부족할 경우 성찬 참여자의 수에 맞도록 빵을 준비합니다. 빵은 집례자와 집례위원들을 위해 사용하고, 회중은 면병(웨이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병은 접시에 담아 성찬상 위에 다른 성물들과 함께 올려 둡니다. 성물의 양은 알맞게 준비하여 남는 양을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5. 성찬참여의 방식은 집례위원들이 빵(면병)과 잔을 앉아 있는 회중에게로 가져다주는 방식보다는, 가급적 전체 회중이 빵과 잔을 들고 있는 집례위원들 앞으로 차례로 나와, 먼저 빵을 받고, 이어 잔에 담긴 포도즙에 찍은 후, 입에 넣고 자리로 돌아가 앉는 방식으로 하도록 합니다. 빵을 맡은 집례위원은 성도에게 떡을 주면서, '그리스도의 몸,' 또는 '주님의 몸'이라 하고, 잔을 맡은 집례위원은 '그리스도의 보혈,' 또는 '주님의 보혈'이라 합니다. 이 때 성도는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빵을 받고 잔에 빵을 찍습니다.

\*표에서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섭니다.

## ■ 신앙고백\*

다함께

집례자는 설교대에서 성찬상으로 자리를 옮겨 회중을 바라보고 신앙고백을 인도한다.

집례자 | 우리는 믿습니다.

**회 중 |**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의지하며 온 마음을 다해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관계의 하나님이 사랑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생태계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자유의 하나님께서 인류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태계가 그러하듯이 우리 인간도 형제자매 피조물들과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기적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형제자매 피조물들을 존중하고 보호하므로 창조세계를 보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2050 한국교회 탄소중립 선언』 중에서 발췌.

## ■ 평화의 인사\*

집례자와 회중

집례자 |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불의와 죄를 사함 받은 우리는 평화와 사랑의 끈 안에서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집례자 |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회 중 |** 또한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집례자 | 서로에게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서로에게 |**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한다.)

## ■ 성찬찬송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찬231)

다함께

성찬찬송은 상황에 따라 적합한 곡으로 바꿔 부를 수 있다. 성찬찬송이 진행될 때, 집례자는 성찬을 위해 성찬상에 놓인 성물(떡과 잔)을 확인하고 시작을 준비한다.



## ■ 성찬초대와 감사기도

## 집례자와 회중

집례자 |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오라, 너희는 와서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모두를 생명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집례자 |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회 중 |** 또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집례자 |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높이 들시다.

**회 중 |**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집례자 |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회 중 |**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집례자 | 기도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온 만물을 내신 영원한 성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영광 돌림이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은 태초부터 빛 속에 계시오며, 생명의 샘이시오, 모든 참됨의 근원이 되시나이다. 사람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과 화해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참되고 영원히 사는 길로 이끄시나이다. 주님, 간구하오니, 우리를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빛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당신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바라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창조와 구원의 신비를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은 이 세상만이 아니라 장차 올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 부와 지혜, 부를 수 있는 모든 이름들보다 높이 계십니다. 주님 곁에는 수 천 수 만의 천사와 천사장, 성도들과 살아있는 만물들이 보좌합니다. 주님, 하늘과 땅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나이다. 아멘.

3세기 이집트의 교부인 세라피온(Serapion) 주교의 성찬감사기도(anaphora)를 본 성찬예전에 맞게 축약 수정하여 옮김.

## ■ 감사찬미 ..... 거룩송(김민정 곡) ..... 다함께

아래의 전례곡조 외에, 찬송가 625, 629장을 부를 수 있다.



## ■ 성찬제정 및 분병분잔 ..... 집례자

그리스도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던 중에,

**(분병)** 떡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찬양 받으소서, 우리의 주 하나님, 온 만물의 왕이시여, 감사하나이다. 주님은 우리로 살찌고 생기 있는 땅에서 살게 하시고 땅으로부터 이 떡을 내셨나이다.”<sup>1)</sup> 기도하신 다음, 떡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분잔)** 또한 그와 같이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복되신 주님이시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주님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여 온 세상을 선함과 은혜, 자비로 먹이시고, 우리에게 기름진 양식을 주시나이다.”<sup>2)</sup> 기도하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분병분잔이 끝난 후, 집례자는 이어서 성령의 임재 기원을 한다.

**(성령임재 기원)** 메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 이제 주님의 임재를 구하오니, 성령을 주님의 교회에 드러진 이 떡과 잔에 보내주소서. 곡식의 씨앗이 땅에 뿌려졌다가 다시 만나 한 떡을 이루었으니, 모아진 양식으로 이 식탁에 참여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을 먹여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로 땅 끝에서부터 한데 모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 안에서 믿음의 확증에 이르게 하사, 우리로 당신의 종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리는 참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sup>3)</sup>

1)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소개하는 예수의 유월절만찬의 감사기도의 내용을 본 예전에 맞게 수정 적용함.  
Joachim Jeremias, The Eucharistic Words of Jesu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7), 109-110 참조.

2) Ibid. 엘리노어 크라이더, 『성품을 빛는 성찬: 성찬의 신비로운 은혜』(서울:대장간, 2020), 37-38 참조.

3) 2세기의 문헌인 디다케(Didache)에 실린 떡에 대한 성별기도와 3세기 히폴리투스(Hippolytus)의 성찬감사기도의 성령임재기원(epiclesis)의 내용을 본 성찬예전에 맞게 수정하여 옮김.

## 주님의기도 ..... 하늘에 계신(찬636) ..... 다함께

주기도문을 찬송가 영창으로 부르지 않을 경우, 기도로 할 수 있다.

## 성찬참여\* ..... 이 빵을 먹으라 (Taize) ..... 다함께

성찬 참여 순서는 집례자-집례위원-예배위원-회중 순으로 참여한다. 성찬참여 시, 회중은 아래의 찬양을 부르면서 떡과 잔을 받고 제자리에 돌아온다. 또는 앞서 부른 찬231장이나, 그 외 적합한 성찬찬송을 부를 수 있다. 기도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창조세계와 지구환경을 고통하게 하는 인간사회의 무지와 탐욕, 오만함을 참회하고, 죽음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주님으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승리를 바라며 묵상할 수 있다.



## 성찬 후 기도\* ..... 다함께

하늘과 땅을 여시고 만물로 숨을 쉬게 하신 하나님, 죽음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는 우리를 불러내어 그리스도의 참된 양식을 먹고 마시게 하심에 감사하나이다. 주님 구하오니, 우리로 죽어가는 창조세계와 지구환경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뜻을 다시 새기게 하시어, 주께서 맡기신 선한 청지기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성령과 한 분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창조세계와 생태환경 보존을 위한 한 몸 기도\* ..... 다함께

본 기도는 인류의 탐욕과 무지, 오만으로 인해 신음하는 지구환경과 그 안에서 함께 죽어가는 지구촌의 생명과 이웃들을 위한 중보기도이다. 아래와 같은 방식과 내용으로 기도할 수 있다.

### 1. 온난화로 죽어가는 생태환경의 회복을 위하여

피조물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 인간의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개발정책과 산업과학기술로 인해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가는 지구를 위하여 기도하나이다.(침묵) 하늘과 땅을 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주님, 그러나 지금 세계는 우리의 욕망과 이기심, 무지와 안일함으로 숨을 쉬지 못해 죽어가나이다. 주님 구하오니, 우리로 생존공간인 지구를 생명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청지기의 소명을 깨닫게 하시어, 우리 각자가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지구생태환경을 살리는데 동참하게 하옵소서.

## 2. 기후변화로 생존위기에 내몰린 기후약자들을 위하여

낮과 밤의 섭리와 계절의 변화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생존과 생업을 이어갈 수 없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침묵) 주님, 비오니, 강과 바다, 산과 숲에 의지해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 각자가 삶의 습관을 바꿔 생명을 지키고 회복시키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 3. 학대와 착취, 폭력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사회의 죄악으로 학대와 착취 아래 죽어가는 인간의 생명과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침묵) 주님, 구하오니, 우리로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고 착취하는 모든 형태의 학대와 폭력에 맞서게 하옵소서. 뿐만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닮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듯, 주님께게서 나와 우리와 같은 숨을 쉬며, 같은 흙으로 돌아가, 흙으로 만나게 될 살아있는 동물과 식물들을 아끼고 돌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결단찬송\*** .....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찬322) ..... **다함께**

결단찬송은 상황에 따라 적합한 곡으로 바꿔 부를 수 있다.

**강복선언\*** ..... **맡은이**

“주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 주시며, 주께서 너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께서 너를 고이 보시어서, 너에게 평화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민6:23-26의 아론의 축복기도를 <새번역성경>을 표현에 맞춰 선언함

# 창조세계의 회복을 결단하는 예식

- 이 예식은 창조세계 회복을 향한 결단을 다짐하는 예식입니다.
- 예배 장소의 앞쪽에 미리 화분, 씨앗, 묘목, 물을 준비해 주십시오.
- 씨앗과 심을 사람과 물을 줄 사람을 미리 선정해 주십시오.
-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 의례를 진행합니다.

## 초대사

집례자 :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온 생명이 생동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을 드높이,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을 생명의 주님께  
드리십시오.

회 중 : 아멘.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 창조세계 보전을 위한 기도

집례자 :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참 좋구나' 감탄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탐욕에 눈이 가리워져 하나님을 잊고 사명을 외면하였습니다.  
기후위기로 못 생명이 스러져갔지만 '편리'를 포기할 수 없었고 '욕망'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피조세계를 파괴하는 길에서 돌이켜, 창조세계를  
보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 중 :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아름답게 바라보셨던 주님의 시선을 저희에게 내려주시어,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 성령임재의 기원

집례자 :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살아계신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 안에 약동하시어, 성부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저희를 동참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어, 생태정의를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 중 : 피조물의 아픔에 공명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결단의례**

집례자 :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생명을 나누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회복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결단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회 중 : 삼위일체 주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헌신을 드리는 이 의례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집례자 :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 교회와, 이 세상에 고이 심습니다.

회 중 :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우리의 창조신앙 안에서 잉태하소서.

**(씨앗을 심습니다.)**

집례자 :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교회가 되기를 결단하며, 이 시간 묘목을 심습니다.

회 중 : 주님의 창조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생태정의의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묘목을 심습니다.)**

집례자 : 물은 생명을 살리는 힘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물이 되어 피조세계 못 생명을 살리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회 중 : 생태영성으로 진실하게 길어올린 우리의 신앙으로, 세상을 살리는 물이 되겠습니다.

집례자 : 메마른 땅에 생기를 솟게 하시는 성령이시여, 탄소중립을 결단하는 우리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소서.

회 중 : 아멘.

**(화분에 물을 줍니다.)**

집례자 : 오늘 우리는, 2022년 환경주일을 맞이하며, 교회의 탄소중립 실천을 결단하며 신앙의 의례를 거행하였습니다. 생태영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가 되기를! 지체없이 피조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탄소중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의 소망을 담은 이 의례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생태적 전환을 이루어갈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회 중 : (일어서서 침묵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 자연이 주는 행복

## 계 3:17 새번역

박창규 목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집행위원, 새사랑교회 협동목사)

따스한 봄바람이 우리를 감싸듯, 오늘 함께 예배하는 어린이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서 포근하게 안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일 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달이 있다면 바로 지금인 5월일 거예요. 이양하 선생님(1904~1963)은 '신록예찬'이라는 글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고 먼 산을 바라보라. 어린이의 웃음같이 깨끗하고 명랑한 5월의 하늘, 나 날이 푸르러 가는 이 산 저 산..."이라며 5월의 아름다움을 노래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5월을 가리켜 "계절의 여왕"이라 부르지요. 서양에서도 5월을 연중 어느 달보다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달이라고 한다고 해요. 올 5월은 더더욱 그런 거 같아요. 아직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야외에서만큼은 마스크를 벗고 편안히 숨 쉴 수 있다 보니 살아있음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고 무엇보다 마스크 아래 감춰져 있던 어린이 여러분의 환한 미소는 계절의 여왕인 5월보다 더욱 아름답습니다.

### 행복의 5가지 조건

오늘 환경 주일을 맞아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자연이 주는 행복"이라는 제목의 짧은 설교를 전하려고 해요. 잘 들어주실 거지요?

여러분은 언제 행복한가요? 어린이날이나 생일에 부모님에게 새 장난감을 선물 받거나

용돈을 받을 때인가요? 아니면 달콤한 사탕이나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인가요? 또는 편의점과 마트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 한 개 남은 포켓몬스터 빵을 찾았을 때인가요?

이처럼 우리들을 포함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어떤 물건을 손에 쥐었을 때에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라오디게아라는 동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곳은 아주 돈이 많은 동네였어요. 돈을 저축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며 또 다른 나라 돈을 바꿔주는 은행들이 곳곳에 있었고요. 비단과 같은 좋은 옷감이나 값비싼 양탄자를 잘 만드는 것으로도 유명했어요. 또한 여러 가지 좋은 약을 만드는 의술도 다른 동네보다 많이 발전해서 몹시 부유한 마을이었다고 해요. 이처럼 돈이 많으니 사람마다 행복하고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성경은 이 말을 가리켜 이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계 3:17 새번역)

## 자연이 주는 행복

박창규 목사

왜 성경은 부자 동네인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돈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도넬라 메도스라는 분은 행복의 조건을 5가지로 말해요. 무엇일까요?

**첫째,** 깨끗한 공기와 흙 그리고 물

**둘째,** 바이러스나 태풍이나 홍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나 전쟁으로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사는 것

**셋째,**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

**넷째,**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

**다섯째,** 음악이나 미술, 운동이나 여행과 같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것

이처럼 도넬라 메도스는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깨끗한 공기와 흙 그리고 물”을 이야기 하는데, 바로 이 라오디게아라는 마을에는 돈은 많았지만 깨끗한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옆 동네 골로새에서 시원하고 맑은 물을 긴 수로(물길)를 통해서 끌어오긴 했지만, 워낙 거리가 멀어서 오는 사이에 그 물은 미지근해지고 또 더럽혀졌지요. 그래서 성경은 “네가 스스로 부자여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불쌍하고 가난하다”라고 말하는 것 아닐까요? 라오디게아의 이야기처럼 꼭 돈이 많은 것만이 부자가 아니고, 또 부자여야만 행복한 게 아녜요.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또 좋은 흙과 땅에서 나오는 건강한 먹거리를 먹고, 새소리 바람 소리 물 소리를 들으며 거닐 수 있는 숲과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예요. 하지만 우리의 끝없는 욕심이 행복의 더 큰 조건인 공기와 흙, 물을 더럽혀

우리 삶을 불행케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도 사실 인간의 탐심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자연이 주는 행복에 눈을 뜨시길 바라요.



## 어린이 기도 예문

“보아라, 내가 문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계 3:20(새번역)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세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서,  
많음과 빠름이 주는 편리함만을 쫓느라  
미처 잊고 있었던 자연이 주는 행복을  
다시금 일깨워주세요.  
우리 안에서 덜어낸 욕심만큼,  
아파하는 자연과 못생명에 대한 감각을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자연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롬 8:18-22

김혜미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집행위원/ 아름다운교회 전도사)

얼마 전 도서관에서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라는 제목의 책을 발견하고 마음의 소리를 내어 목차를 읽어보았습니다. 우연히 손에 들어온 책의 목차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세상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여’ 하지 말아라, 아들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가만히 목차를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망치로 얻어맞은 듯 마음이 얼얼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기승을 부릴 때였는데 문득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바이러스를 없애 달라고 하지 말아라, 사실은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주범이면서.”

인류의 삶은 진화를 거듭하여 분명 편리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는데, 우리가 정말로 살기 좋은 세상에 도달하게 된 것인지를 반문하자면 매번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곤충들은 어떨까요? 요즘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사람들의 걱정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꿀벌을 걱정하는 것 같지만, 솔직히 말해 사람의 식량이 부족해질까 봐 마음을 졸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의 끝없는 이기심이 오늘의 환경 위기를 만들어냈는데도 여전히 피조물, 그러니까 창조된 존재 중

인간만이 으뜸이며 최우선인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무어라 말씀하실까요?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함께 피조물의 ‘탄식’을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영광은 미래에 이뤄질 소망을 바라보는 것으로, 아직 나타난 것이 아니며 현재를 가리키는 것은 탄식입니다. 다시 말해, 언젠가 다가올 영광의 시간을 기다리며 탄식의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모든 피조물의 운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산다는 건 풀어도 풀어도 끝나지 않는 숙제 같은 일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며칠 전 읽은 기사에서는 한국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OECD 22개국 중 최하위, 청소년 자살률도 OECD 평균보다 1.4배 높다고 하더군요. 이런 내용의 기사는 이미 오랫동안 반복해서 읽어 왔는데 변화는 없는 것 같아 한숨이 절로 쉬어집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탄식의 뜻이 이렇습니다. ‘한탄하여 한숨을 쉬.’ 개역개정 성경에서 ‘탄식’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쉬스테나조(συστηνάζω)’인데 이 단어에는 ‘재난을 같이 맛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탄식의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나’뿐이 아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나’에서 ‘우리’로 돌리십니다. 2년이 넘도록 고통스럽게

## 자연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김혜미 전도사

팬데믹을 지나오며 전 세계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된 것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건 나만이 아닌 '우리'이며 언제나 나와 같이 재난을 맞보고 있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인 우리는 이 '우리'에서 자꾸만 자연을 빠뜨립니다. 그러면서 재난을 맞보는 것이 마치 인간뿐인 듯 괴로워합니다. '우리'라는 말 속에 초미세먼지로 본래의 청아한 빛을 잃어버린 하늘도, 남극 빙하가 녹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다표범도, 미세플라스틱으로 배를 채우는 바닷물고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우리'는 분명 인간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의 '우리'에도 인간 외의 소중한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탄식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창조된 존재 중 유독 인간의 고통과 신음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아니, 타인인 인간의 고통에도 무감각해가는 것이 오늘날 죄로 물든 인간 세상의 모습이 아니던가요? 재난을 같이 맞보고 있는 존재들의 탄식 소리가 더는 들리지 않게 된 게 사실은 팬데믹보다 더 심각한 재앙임에도 이 바이러스만 벗어나면 될 것처럼 근시안적인 시선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인간인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온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으로, 오랜 시간 동안 탄식하며 재난을 당해온 자연의 눈물을 이제는 그만 닦아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로마서 8장 19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세계 전체는 장차 자신에게 다가올 그 무엇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가 탄식이고 미래가 영광이기에 기다림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에서처럼 모든 피조물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해방의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이제는 '우리' 안에 인간이 아닌 존재들을 함께 생각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현재의 탄식을 신음하며 함께 고통받고 있는 창조세계의 모든 구성원을 마음에 품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만 생각하면서, 자연의 고통에는 무심한 채 온통 인간들만 생각하면서 '우리'라고 말하지 말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잠잠히 귀를 기울여보기 바랍니다.

## 청소년 기도 예문

사랑의 하나님,

하늘, 땅, 바다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생명이 가득합니다.  
풀과 꽃과 나무, 곤충과 동물들, 물속을 헤엄치는 물살이와 하늘을 나는 새들,  
모두가 저희의 친구들입니다.

다양한 이웃 생명들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에서  
함께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닮아 작은 생명 하나도 소중히 여기며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기후위기로 인해 곳곳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가뭄과 물 부족, 홍수와 태풍, 폭염, 해수면 상승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파괴되어 수 많은 생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기후재난으로 위기에 처한 모든 생명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안아주세요.  
특히 기후위기로 약한 생명이 더욱 고통받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저희가 어른이 되었을 때 지구는 어떤 모습일까 두렵습니다.

들려오는 절망적인 소식들에 희망이 없다 성급히 결론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혼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공동체와 고민을 나누고,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행동을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모든 지구 생명들을 더욱 사랑하고,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 아파하고,  
세상을 바꿔 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지희(기독교환경운동연대 간사, 가재울녹색교회 전도사)

# 창조세계 회복을 위한 2022년 환경주일 선언문

##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녹색교회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의 소명으로!!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18-19)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파멸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무분별한 개발과 성장주의에 빠져 앞만 보고 달려오는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생물들이 멸종되었고, 지구의 평균 기온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며, 거대한 자연재해가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전 세계를 섰다온 시켰던 코로나19 바이러스 역시 천지만물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약탈한 우리 인간들의 탐욕의 결과입니다. 피조물의 신음소리가 온 천하에 가득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창조세계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하는 일에 속히 나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왔던 풍요의 환상에서 깨어나 인간만이 아닌 지구, 자연, 그리고 동식물과 공존하기 위해 기꺼이 가난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우리는 성장주의에 빠져 창조세계를 돌보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피조물을 희생시켜 만들어낸 성장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착각했습니다. 기후위기 가운데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기후난민의 고통에 귀를 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창조세계를 회복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탐욕의 길로만 걸어왔습니다. 우리의 무지와 탐욕, 부끄러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망가지고 파괴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참회합니다. 탄식하는 피조물들 앞에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는 이제 죄의 자리를 벗어나 생명과 평화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기후정의의 삶을 살겠습니다. 편리와 이윤이 아니라 불편과 비움을 몸으로 이루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녹색 은총을 덧입은 녹색그리스도인이 되어 기후정의를 이루는 이 거룩한 사명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는 피조물들에게 고통을 주는 생태적 불의에 맞서 고통받는 피조물들을 보듬어 안고 치유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녹색교회, 거룩한 생명의 공동체로 거듭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에 감사하며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십자가의 영성과 창조세계에 가득한 햇빛과 바람과 물의 은총에 감사하며 온 누리의 살롬을 이루는 녹색은총이 조화를 이루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 창조세계 회복을 위한 2022년 환경주일 선언문

오늘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의 도전은, 이 땅의 교회를 향해 기독교 신앙의 뿌리와 기본으로 되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성령님의 거룩한 초대입니다. 오랜 세월동안 무지와 욕망의 세계에 다 빼앗겨 버린 '사랑', 바로 그 좁고 험한 길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 지도 모르는 구원의 목소리에 기쁘게 응답하여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있는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길로 힘차게 달려갑시다. 우리가 먼저 피조물이 간절히 기다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태워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 생태정의, 기후정의를 이루어 갑시다.

이를 위해 우리는 2022년 제 39회 환경주일을 맞아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의 소명을 마음에 새기며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1. 우리는 '2050 한국교회 탄소중립 선언'의 후속작업으로 '한국교회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로드맵'을 만들어 모든 교회와 공유하고 함께 실천해나감으로써 진정한 기후정의를 실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2. 우리는 지역별로 '기후정의학교'를 진행하여 기후정의를 위한 일꾼을 양성하고, 지역의 생태환경 현안에 공동 대응하는 등 생태정의를 모색하는 한국교회의 연대와 협력의 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 우리는 '한국교회 탄소중립 캠페인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생태적 그리스도인과 녹색교회의 본을 보여 우리사회의 생태적 전환을 이루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기후위기 시대, 우리에게 주신 탄소중립의 소명을 깊이 새기고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녹색교회가 되어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이 신음하는 모든 피조물 위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2022년 5월 24일

제39회 환경주일 연합예배 참가자 일동



## 그린 엑소더스(Green Exodus) 공동기도문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지구 생태계의 생명체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성장과 번영을 쫓느라 탐욕이 이끄는 대로 행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을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의의 하나님, 우리를 회색에서 녹색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가 기후위기의 현실을 깨닫고 생태적 회심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하늘을 나는 새와 들의 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기후정의를 위한 일에 목소리를 내고 헌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평화의 하나님, 우리를 탐욕에서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사회가 탐욕에 눈이 어두워 주님의 은총을 떠났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창조세계에 베푸신 은혜가 차고 넘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먼저 기후약자들을 돌아보고 살피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세계가 다가오는 위기 앞에서 낙심하며 쓰러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생명을 향한 걸음을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거룩한 사명에 동참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이어가는 곳마다 정의, 평화,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그린 엑소더스(Green Exodus) 실천다짐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태계의 모든 생명체는 상호의존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피조세계 생명들을 지키고 돌봄으로써 창조세계를 온전히 보전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탐욕과 어리석음에 빠져 성장과 번영을 좇느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멸종의 위기에 처했으며, 사회의 약자들이 더 많은 고통을 당하는 기후 부정의와 기후 불평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걸음을 멈추고 모든 피조물들이 각자의 생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삶의 생태적 전환을 이루어 가려 합니다.

## 1. 우리는 회색에서 녹색으로의 전환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 우리는 계속해서 기후위기의 비상상황을 살피며 알리는 기도와 예배를 이어가겠습니다.
- 우리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실천에 앞장서는 녹색교회를 세워 생태적 전환을 이끌겠습니다.

## 2. 우리는 탐욕에서 은총으로의 회심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 우리는 기후위기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구 생태계의 생명체와 기후약자들을 돌보겠습니다.
- 우리는 기후위기의 원인인 탐욕의 경제를 떠나 은총에 의지하는 생명의 경제를 이루겠습니다.

## 3. 우리는 절망에서 희망으로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우리는 기후위기에 절망하지 않고 새롭고 다양한 실천을 통해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 우리는 기후위기로 취약해진 지구 생태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후위기로부터 창조세계의 온전성을 지키고 회복시키는 일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과 연대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국교회 기후위기 대응 공동 프로젝트 그린 엑소더스

한국교회 탄소중립 캠페인

#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

“탄소중립을 위한 일곱가지 실천으로  
창조세계를 온전히 회복합시다”

생명경제

녹색서재

그린에너지


녹색교통

기후미식

슬로우패션

미니멀라이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 생명의길 초록 발자국

탄소중립을 위한 일곱가지 실천으로  
정조세계를 온전히 회복합니다!



## 기후 미식 (Climate gourmet)

기후미식은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강한 식생활입니다.

**나의 음식은 나를 되돌아오는 건강한 식생활입니다.**  
그의 힘을 온전히 이롭게 하십시오. (요 4:34)

식물의 생산과 운송, 보관, 폐기 과정에서 많은 양의 탄소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육류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는 전체 탄소 배출의 약 22%를 차지합니다. 우리의 밥상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고 건강을 살리는 기후 미식을 실천합니다.



### 채식에 참여합니다

- 집에서: 채식에 참여하고 재식을 늘려드립니다.
- 교외에서: 채식 중심의 공동식사를 준비합니다.
- 지역사회에서: 공공급식에서 채식을 확대해 나갑니다.

### 로컬푸드를 확대합니다

- 집에서: 탄소배출이 적은 로컬푸드를 이용합니다.
- 교외에서: 도시·농촌 교외가 로컬푸드 교류에 나섭니다.
- 지역사회에서: 로컬 푸드 매장과 식당 운영을 확대해 나갑니다.

## 슬로우 패션 (Slow fashion)

슬로우 패션은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패션 문화입니다.

**모두 밟고 있는 자는 못 밟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욥 3:17)

옷을 생산하고 유통, 소비, 폐기하는 과정에서 상당량의 탄소가 배출됩니다. 또한 합성섬유로 만든 옷은 세탁과 폐기하는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만들어 집니다. 이제 우리의 옷장을 유행을 따르기 위한 '패션 패션' 대신 생명의 가치를 잇는 '슬로우 패션'으로 채웁니다.



### 소박한 옷장을 만듭니다

- 집에서: 친환경적인 옷을 필요한 만큼만 구매합니다.
- 교외에서: 안 입을 옷을 서로 바꾸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 지역사회에서: 녹색가게 운영을 확대해 나갑니다.

### 시활용(Up-cycling)을 합니다

- 집에서: 수선과 리폼을 생활화 합니다.
- 교외에서: 생활용 장보를 공유하고 안내합니다.
- 지역사회에서: 생활용 공방 운영을 확대해 나갑니다.

## 미니멀 라이프 (Minimal life)

'미니멀 라이프'란 불필요한 소비를 없애 탄소배출을 줄이는 삶입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요 6:12)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은 생산, 구매, 소비의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됩니다. 또한 우리가 소비한 물건들은 언젠가는 모두 쓰레기가 되고 만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간단한 필요에 무엇인지 생각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 필수품과 오래 사용합니다

- 집에서: 꼭 필요한 물건만 구매합니다.
- 교외에서: 나에게 불필요한 물건을 서로에게 나눠줍니다.
- 지역사회에서: 탄소배출이 적은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합니다.

###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에 참여합니다

- 집에서: 제로 웨이스트 가게를 이용합니다.
- 교외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다회용품을 준비합니다.
- 지역사회에서: 제로 웨이스트 가게 운영을 확대해 나갑니다.

## 녹색 교통 (Green transport)

'녹색 교통'이란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교통 수단입니다.

**무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여수에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라를 내리시라** (막 16:12)

내연기관 자동차는 탄소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물질도 배출합니다. 전기관차와 수소전기차도 아직까지는 화석연료로 만든 전기와 수소를 사용하기에 탄소를 배출합니다.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자전거와 공공교통을 이용하여 탄소배출을 줄입니다.



### 자전거를 이용합니다

- 집에서: 일상생활에서 자전거를 이용합니다.
- 교외에서: 자전거 주차대의 수리함을 설치합니다.
- 지역사회에서: 자전거 편의시설을 확대해 나갑니다.

### 공공교통을 이용합니다

- 집에서: 버스, 지하철 등 공공교통을 이용합니다.
- 교외에서: 자동차 없는 날을 정하고 알립니다.
- 지역사회에서: 공공교통 이용을 확대해 나갑니다.

## 녹색 서재 (Green library)

'녹색서재'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문화생활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책들과 시집나무와  
파석의 물결나무를 심고** (시 41:19)

홍수를 통해 대아비가 오가는 과정에서도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탄소가 발생됩니다. 불필요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대신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또한 탄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저장하고,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숲을 복원하고 건강하게 가꿉니다.



### 영상을 읽고 책을 읽습니다

- 집에서: 핸드폰과 TV 없이 지내는 시간을 가집니다.
- 교외에서: 도서관을 만들고 책 읽는 모임을 만듭니다.
- 지역사회에서: 공공 도서관을 운영하고 확대해 나갑니다.

### 숲을 가꿉니다

- 집에서: 집과 일터에서 친환경 재용품을 사용합니다.
- 교외에서: 정원을 만들고 숲을 가꾸는 일에 참여합니다.
- 지역사회에서: 숲을 만들고 가꾸는 일을 확대해 나갑니다.

## 생명 경제 (Economy of life)

'생명경제'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 제도입니다.

**내가 생명의 사랑과 복과 지극히 내 마음에 주었으므로  
내와 내 자손이 내가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신 30:19)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녹색 투자를 통해 탄소 배출이 없는 산업을 활성화시켜 탄소 경제를 성장경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또한 생태적 가치,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사회적 경제를 확장시켜서 우리의 삶의 질과 전환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 녹색 투자에 참여합니다

- 집에서: 탄소배출이 적은 기업에 투자합니다.
- 교외에서: 자산, 기금을 녹색금융을 통해 운용합니다.
- 지역사회에서: 정의로운 전환으로 건강한 일자리를 만듭니다.

### 사회적 경제를 육성합니다

- 집에서: 생활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이용합니다.
- 교외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어 신고사업에 활용합니다.
-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를 육성합니다.



# 몽골은총의 숲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한국교회환경연구소는 지난 2009년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사막화 방지를 위한 한국교회 몽골 은총의 숲' 조성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몽골 현지 NGO인 그린실크로드와의 협력을 통해 몽골 아르갈란트 지역에 몽골 정부로부터 30년간 임대한 300,000㎡의 토지에 포플러, 비솔나무, 버드나무, 소나무, 차차르간, 타월간, 사와 등 현지 토양과 기후에 적합한 11여 종의 나무 묘목 28,000여 그루를 심고 가꾸어 왔습니다.

“ 몽골 은총의 숲 조성 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심는 일은 아닙니다. 최근 30년 동안 진행된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사막화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몽골 이웃들을 돕는 일이며, 우리들의 탐욕으로 파괴된 창조세계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하는 생태정의를 이루는 일입니다. ”

## 후원안내

- 1그루 1만원 (식수 및 관리비 포함, 100그루 이상 후원 시 후원자 명의의 팻말을 세워드립니다)
- 몽골 은총의 숲 조성 지역에서 진행되는 생태기행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농협 301-0009-6346-21**

한국교회환경연구소(몽골은총의숲)



정기후원신청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한국교회환경연구소



# 추천 자료



## 생명과 더불어 녹색희망으로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생태교회 매뉴얼

**편집** : 김신형, 백영기, 송진순, 윤태현

이성호, 이원영, 장동현

**제작** : 기후위기기독교신학포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21년 12월 발간, 비매품 (PDF파일로 배포))

**제작** : 기독교환경운동연대(02-711-8905)

NCCK 생명문화위원회(02-765-1136)

기독교환경운동연대와 기후위기기독교신학포럼, NCCK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제작한 생태교회 매뉴얼이 출간되었습니다.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책임입니다. 한국교회 탄소중립을 위한 교육과 실천을 위한 귀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생태교회를 위한 예배

1-1 생태교회를 위한 예배 이론

1-2 생태교회를 위한 예배 실천

### 2. 생태교회를 위한 교육

2-1 생태교회를 위한 교육 이론

2-2 생태교회를 위한 교육 실천

### 3. 생태교회를 위한 선교

3-1 생태교회를 위한 선교 이론

3-2 생태교회를 위한 선교 실천

# 2022년 환경주일 예배 자료집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

02-765-1236

[www.ncck.or.kr](http://www.ncck.or.kr)

기독교환경운동연대 한국교회환경연구소

02-711-8905

[www.greenchrist.org](http://www.greenchrist.org)